

# 이데일리

## “소리, 듣고 감각하고 상상하라”...전소정 작가의 '속도' 이야기

이윤정 기자  
2023.11.09

전소정 개인전 '오버톤'  
신작 영상 '오버톤'...조각 '에피필름' 선보여  
"경계를 넘는 속도의 세계 상상"  
2024년 1월 7일까지 바라캇 컨템포러리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제가 관심을 가진 건 ‘속도의 세계’였어요. 기차 등 일반적인 속도 외에 생물이 이동하는 속도라던가 소리나 언어가 경계를 넘는 속도 등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죠.”

‘소리’에 천착해 온 전소정 작가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내년 1월 7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로 바라캇 컨템포러리 갤러리에서 개최하는 개인전 ‘오버톤’(Overtone)이다. 전시 제목인 ‘오버톤’은 그의 신작 3채널 영상 ‘오버톤’(2023)의 타이틀이기도 하다. ‘오버톤’은 기본음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음(上音)들이 서로 충돌하며 어우러져 하나의 통합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음악 용어다. 영화의 몽타주 기법인 ‘상음적 몽타주(overtone montage)’를 뜻하기도 한다.

7일 바라캇 컨템포러리 갤러리에서 만난 전 작가는 “악보에도 등장하지 않는 ‘농현’(현악기에서 왼손으로 줄을 짚고 본래의 음 이외에 여러 가지 음을 내는 수법) 등의 소리 개념을 전면화해보고 싶었다”며 “서로 다른 연주자들이 협업하기도 하는데 이전 작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흥미로운 지점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전소정 작가(사진=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서는 영상 ‘오버톤’을 비롯해 조각 작품 ‘에피필름 I’ ‘에피필름 III’, 바라캇 컨템포러리 전시를 위해 처음 개발한 AR 앱 ‘싱코피’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 현실과 가상 공간을 초월해 조각과 영상, 디지털 데이터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망을 만들어낸다.

‘오버톤’은 소리를 따라 남북을 가로질러 이동했던 가야금 연주자 박순아의 여정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한·중·일 아시아의 금(琴) 연주그룹 고토히메와 이들의 연주를 위해 한국과 독일, 과테말라에서 각각 활동하는 세 명의 작곡가가 모여 연주를 한다. 이들은 ‘세 개의 악장, 음악의 길이, 템포’ 정도만을 합의한 채 각각 가야금, 고토, 고쟁을 위한 곡을 만들면서 소리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전소정 작가의 영상 작품 ‘오버톤’(사진=바라캇 컨템포러리).

전시장에 들어서면 새하얀 공간에 조각으로 재탄생한 초록빛의 ‘에피필름’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에피필름’은 선인장과에 속하는 공작선인장이다. 무역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권으로 퍼져나갔다는 점에서 경계를 넘은 ‘이동’을 상징하는 식물이다. 작가는 에피필름을 몸집이 비현실적으로 크거나 아주 작아지는 변신에 능한 존재로 설정하고 작품으로 만들었다. 식물을 직접 보고 만든 것이 아니라, 3D 이미지에 등장하는 디지털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싱코피 앱을 통해 관람객들도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조각의 몸집을 키우거나 줄일 수 있다. 손가락으로 조각을 이동시키면서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도 있다. 김민정 큐레이터는 “조각과 조각 사이, 스크린과 스크린 사이를 떠도는 소리의 진동을 듣고, 감각하고, 상상하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23’에도 선정됐다. 내년 3월 31일까지 신작 영상 ‘싱코피 syncope’를 비롯해 그간의 작품들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소정 작가의 조각 작품 '에피필름 I'과 '에피필름 III'(사진=바라캇 컨템포러리).

이윤정(younsim2@edaily.co.kr)